

배포일시	2020. 12. 11.(금) 16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	담당자	과장 신언성 예보관 유제규
		전화번호	043-272-0365

13일 충청북도 북부지역 중심 많은 눈, 14일(월)~16일(수) 강추위

○ 13일 충청북도 2~7cm, 14일(월)부터 최저기온 영하 10도 내외 한파 주의



[12월 13일 오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청주기상지청(지청장 이경희)은 13일(일)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14일(월)부터 강추위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전망과 국민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청주기상지청은 고도 약 5km 상공에서 -25℃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다가오겠다고 하며, 이 찬 공기에 의해 서해상에서부터는 구름대가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유입되고, 기온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- 13일은 서해북부해상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저기압에 의해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.
- 중부지방의 눈이 그치는 14일부터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됨
- 특히, 이 시기(14~15일)에는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전역을 지배함에 따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.

[13일 충청북도 북부 중심 많은 눈]

- 서해북부해상의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3일 아침부터 오후사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다고 예상하였다.
- 특히, 충청중·북부 지역은 눈이 쌓이겠지만, 충북남부 지역은 지면 부근의 기온이 영상권을 보여 **진눈깨비**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.
- 특히,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발달하는 만큼 **충북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cm 이상의 많은 눈**이 내리면서 **대설 특보**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하였다.

<예상 적설(13일)>

- 충청북도 : 2~7cm

- 또한, 청주기상지청은 눈이 그친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될 수 있겠다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,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
- 다만, 청주기상지청 예보관은 “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의 이동속도가 느려질 경우 비가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고, 이 경우에는 지면이 젖어 눈이 예상보다 적게 쌓일 수 있으나 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”고 설명했다.

[추위 전망]

- 13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4일은 충청북도 아침 최저기온이 13일보다 5~10℃ 가량 급격히 내려가 한파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,
- 이 기간(14~15일)에 충청북도 지역은 영하 10℃ 내외를 기록하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,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아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또한,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7~10℃ 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,
- 다음 주에도 한파가 지속되면서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고 당부 하였다.